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자* · 서 영 숙**

*경상대학교 자연대학 의류학과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Effect of Maslow's Basic Needs on Conformity and Individuality in the Clothing Selection

Kyung Ja Kang* and Young Sook Suh**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Natural Science, Kyung 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1992. 8. 21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need and of demographic variables of adult women on the conformity and individuality in the selection of clothes.

1. There are factors which have effect on variables of need. Marriage status, household type, age have effect on safety need, household type and age have effect on belongingness and love need. Household type and native community have effect on self-esteem need, household type, native community, school career,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have effect on need for self-actualizing. Native community have effect on aesthetic need, and school careers have effect on the desires to know and to understand.

2. Self-esteem need, belongingness and love need, safety need, need for self-actualizing, aesthetic nee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and income as demographic variables are directly related with conformity of clothing. Age, marriage status, native community, household type, school career are indirectly related with conformity of clothing.

3. Self-esteem need, need for self-actualizing, aesthetic need, desires to know and to understand, belongingness and love nee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household type have direct effect on the individuality of clothing. And age, household type, native community, school career have indirect effect on the individuality of clothing.

I. 서 론

1. 문제의식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하려는 인간의 특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 Tarde¹⁾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발명과 모방을 무수히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과거의 모방은 관습이며 새로운 모델의 모방은 유행(fashion)이라고 설명하여 패션을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패션은 동조와 개성이 동시에 작용하며 패션과정을 시작하고 확산시키는데 두욕구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동조·개성욕구는 유행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상반된 두가지 욕구를 모두 갖고있어 어느 쪽을 강하게 갖는가에 따라 의복을 통한 표현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패션은 새로운 것에 대한 사회적 동조를 얻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패션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도 아울러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Cundiff나 Still²⁾ 등도 소비자가 어떤제품을 구매할 때 아무런 내외적 탐색없이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내부의 영향요인과 개인적 영향요인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향요인인 demographic요인과 인간내부의 영향요인인 동기적인 측면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특히 후자는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또한 소비자에 대한 외적자극원(광고·매체·제품등)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실제적인 행동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상당부분 설명해 줄 수 있게된다³⁾.

개인의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힌 선행연구⁴⁾에서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은영⁵⁾도 소비자의 욕구수준이 구매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Maslow의 욕구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이 마케팅에 있어 실질적인 행위전략을 수립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행하는 하나의 행동은 그강

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동시에 여러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될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어떤 욕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가 의복구매시 행하는 동조·개성행동을 Maslow의 욕구와 관련시켜 분석하므로써 소비자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이나 반응행동을 호의적으로 유도하기위한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자료를 얻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연령, 학력, 수입, 직업유무, 결혼여부, 가족형태, 종교유무, 성장지역의 8개변인 그리고 미디어접촉도(TV, 여성지, 신문)를 의복의 동조·개성행동과 관련시켜 분석하므로써 기본욕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어떤 변인들이 의복의 동조·개성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인여성들의 욕구 및 인구통계학적변인들이 어떤 경로과정을 거쳐 의복의 동조·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변인을 밝히기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인여성의 기본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밝힌다.
- 2) 성인여성의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 및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욕구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행동을 욕구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Goldstein은 욕구는 유기체로 하여금 결핍을 보충하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결핍상태라고 하였다⁶⁾. Murray는 인간의 행동은 어느 상황에서는 둘 혹은 그이상의 욕구로 부터 초래될 수 있고 상이한 욕구들의 결과가 동일한 행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

였다. 그는 욕구가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정확하게 무슨 욕구가 무슨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⁶⁻⁸⁾.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우연히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쉽게 추론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Lewin⁹⁾은 인간의 욕구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Murray는 인간의 행동은 결코 욕구상태 하나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그들 환경만의 산술로서 설명할 수도 없다고 보고 욕구와 환경·양자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6,8)}. 이러한 견해는 Cattell¹⁰⁾과 Rogers⁶⁾의 견해도 일치한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동기로 설명하면서 어떤 행동은 동시에 여러욕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만족되지않는 욕구는 때로 높은 수준의 욕구로 보상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욕구가 행동동기로 나타날때 강도순서는 생리적, 안전, 소속감과 애정, 자기존중, 자아실현욕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후에 Maslow는 인지, 미의 욕구를 부가하였다^{7,11)}.

2. 의복의 동조·개성

Sproles¹²⁾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구분하여 채택자의 환경요인과 사회심리적 동기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1) 욕구와 의복의 동조·개성

Creekmore¹³⁾는 개인의 의복행동이 욕구에 의해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보고 Maslow의 기본욕구와 의복행동을 관련시킨 연구에서 소속 및 자기존중욕구는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자기존중욕구는 의복의 도구적 사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Lapisky¹⁴⁾는 불안감이 높은 교사, 학생들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고 강혜원¹⁵⁾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안전감이 높은 사람은 의상의 개성에,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동조성에 더 관심이 높다고 하여 Lapisky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동조성과 사회적 안전감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한 Brady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神山進¹⁶⁾도 안정성욕구가 강할수록 동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혜선¹⁷⁾은 규범적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직장과 사회의 의복규범

을 많이 인식하고, 동조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강경자, 서영숙⁴⁾은 안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여대생과 미국여대생은 모두 소속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에서 동조성을 중시하였으며¹⁸⁾ 정하신¹⁹⁾은 굴중·정동욕구가 높을수록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집단에 수용되기위하여 집단구성원이 의복에 동조하며 의복동조성이 높을수록 동료들로부터의 수용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⁵⁾.

Marlowe와 Gergen²⁰⁾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집단의 압력에 따르기 쉽다고 하였고 Stang²¹⁾은 자존심은 동조와 부(負)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ron과 Byrne¹⁷⁾는 자기존중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하였으며 Horn²²⁾은 개성적인 행동은 독립성과 자신감과 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Centers²³⁾는 타인지향적인 사람이 내부지향적인 사람들보다 사회적 영향에 더 민감하다고 하였고 강경자²⁴⁾는 내부지향적이고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개성주의자이고 자아실현성이 낮고 자기긍정성 즉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동조주의자였다고 하였다. 정미실²⁵⁾도 자기자신이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Boehme²⁶⁾은 자아실현수준이 높은 사람이 설득하기 어려웠으며 디자인 지각에 있어서도 더 분석적이라고 하였다.

Darden²⁷⁾은 성격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은 의복의 동조성과 지배성, 정서적안정성은 의복의 개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Gurel, Wilbur와 Gurel²⁸⁾은 청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에서의 동조성이 그들의 성격구조 및 소속집단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결정됨을 시사하였다. 심리학자들은 개성주의자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 즉 독특함의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고 동조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안전과 사회적 승인에 대한 추구 및 사회적 위협의 회피가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들의 동기는 상반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⁰⁾.

2) 가정환경변인과 의복의 동조·개성

Rosencranze³¹⁾는 환경변인 즉 연령, 학력, 수입,

직업등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Jenkins³²⁾는 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이 동료집단에서 입는 옷을 많이 알고 있으며, Rabolt와 Drake³³⁾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의복선택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호³⁴⁾는 나이가 젊을수록 개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이인자³⁵⁾는 직업여성이 비직업여성보다 의복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였고 또한 직업을 갖지않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일수록²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³⁶⁾ 그리고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더 개성을 중시하였으며³⁷⁾ 수입이 높은 집단이 동조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³⁸⁾. 자아실현성이 의복선택행동에 미친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²⁴⁾에서 핵가족 구성원일수록 개성을 중시하고 집단지향적인 대가족 구성원일수록 동조경향이 높다고 하여 가족형태 즉 가족구성원들이 동조·개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개성주의자들은 여성잡지의 접촉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 패션채택과정에서 선도자가 추종자보다 많은 정보원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polegato와 Wall³⁹⁾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의 가정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으로 하였다.

1990년 12~1월 사이에 500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결과처리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401부가 자료처리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욕구진단척도

이 척도는 개인의 기본욕구를 측정하는 욕구진단척도로서 Maslow의 욕구분류를 기초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기존중욕구, 자아실현욕구, 인지욕구, 미욕구를 진단하기 위한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이 척도는 Creekmore¹³⁾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하여 1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생리적, 안전, 소

속감과 개정, 자기존중, 자아실현, 인지, 미 욕구척도별로 자기 문항과 척도점수와의 상관계수(r)를 구하였다. 또한 이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에서 7개 욕구의 순위별 신뢰도계수는 각각 .665, .779, .719, .445, .652, .646, .640으로 나타났다.

2) 의복의 동조·개성척도

의복의 동조·개성척도는 선행연구^{15,19,40)}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실시한 반분법(split-half method)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733, .715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20대(N=149), 30대(N=145), 40대 이상(N=107)이며 학력은 중졸(N=29), 고졸(N=164), 대졸이상(N=198) 그리고 수입수준은 50만원 이하(N=58), 51~70만원(N=99), 71~90만원(N=88), 91~110만원(N=78), 111만원 이상(N=78)으로 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는 기혼(N=278)과 미혼(N=123)으로, 가족형태는 핵가족(N=337)과 대가족(N=64), 성장지역은 도시(N=305)와 농촌(N=96)으로 구분하고 종교 및 직업은 유·무만을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먼저 독립변인중 명목변인 즉 결혼여부, 직업유무, 성장지역, 종교유무, 가족형태를 가변인으로 전환시킨 후 인구통계학적변인, 욕구변인, 의복의 동조·개성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표 1)로 구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들만 선별하여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절차는 우선 인구통계학적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독립변인, 욕구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7개의 욕구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복의 동조·개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관련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의복의 동조·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 및 이러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2개의 경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의 동조성·개성의 점수분포

의복의 동조성 및 개성에 대한 점수 분포경향은 <표 1>과 같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의 동조 및 개성의 점수분포를 보면 동조성 점수는 11~30점, 개성점수는 21~40점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의복에서 동조하려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경향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¹⁹⁾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포함시킨 의복의 동조성·개성과 욕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표 2>와 같다.

먼저 의복의 동조·개성간의 상관관을 보면 두변인간

은 부적관계이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욕구변인 및 의복의 동조·개성행동에 부분적으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의복에서 동조성은 환경변인과 관련성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성은 학력, 직업유무, 가족형태, 성

<표 1> 동조성 및 개성의 점수분포

요인 빈도, % 점 수	동 조 성		개 성	
	N	%	N	%
41 이상	0	0	2	0.5
31~40	18	4.5	104	26.0
21~30	234	58.3	274	68.3
11~20	149	37.2	21	5.2
1~10	0	0	0	0
전 체	401	100	401	100

<표 2>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동 조 성	1.000																		
(2) 개 성	-.022	1.000																	
(3) 생 리 적 욕 구	-.011	-.076	1.000																
(4) 안 전 욕 구	.267	.156	.021	1.000															
(5) 소 속 의 욕 구	.251	.004	.019	.104	1.000														
(6) 자 기 존 중 욕 구	-.347	.357	-.060	.297	.187	1.000													
(7) 자 아 실 현 욕 구	.049	.256	.106	.169	.210	.418	1.000												
(8) 인 지 욕 구	-.032	.212	-.016	.066	.029	.189	.357	1.000											
(9) 미 욕 구	.290	.315	.000	.319	.177	.595	.332	.216	1.000										
(10) 연 령	.051	-.109	-.029	.163	.131	-.142	-.086	-.053	-.074	1.000									
(11) 결 혼 여 부 (기 혼)	.012	-.118	-.052	.178	.010	-.126	-.095	-.044	-.039	.583	1.000								
(12) 학 령	.001	.221	-.089	-.053	-.072	.195	.163	.075	.181	-.357	-.280	1.000							
(13) 월 수 입	-.063	.017	.019	.011	-.021	.048	.030	-.049	.043	.196	.308	.178	1.000						
(14) 직 업 유 무 (유)	.039	.136	.025	-.005	.037	.102	.064	.085	.022	-.182	-.243	.331	.021	1.000					
(15) 종 교 유 무 (유)	.072	-.034	.033	.065	.019	-.015	-.029	.021	-.019	.247	.253	-.185	.081	-.123	1.000				
(16) 가 족 형 태 (핵)	.036	.142	.028	.107	.148	.129	.168	.017	-.013	-.083	.029	.094	.041	.014	.004	1.000			
(17) 성 장 지 역 (도시)	.069	.172	-.008	.033	.015	.207	.199	.102	.039	-.017	-.062	.251	.072	.097	-.059	.037	1.000		
(18) 메 디 아 접 촉 도	-.116	.207	-.062	-.039	-.035	-.059	-.037	.051	.054	-.159	-.148	.203	.046	.036	-.043	.061	.067	1.000	
Mean	22.09	27.85	22.50	15.92	19.25	18.39	20.47	18.07	19.77										
S.D.	4.85	4.68	2.58	3.09	2.99	4.03	3.90	2.87	3.70										

* p < .05 ** p < .01 *** p < .001

장지역, 미디어접촉도와 정적상관을, 연령, 결혼여부와는 부(負)적상관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고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고, 직업을 가지고, 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구성원일수록,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개성을 중시하고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와 의복의 동조·개성과의 상관을 보면 의복의 동조성은 욕구하위변인중 안전, 소속, 미의 욕구와 정적상관을, 자존감과는 負적상관을 보였고, 개성은 안전,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 인지욕구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Maslow의 욕구가 의복을 통해 동조하거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동기화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복의 동조·개성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 포함시킨 변인들 즉 욕구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어떤경로를 거쳐 의복의 동조·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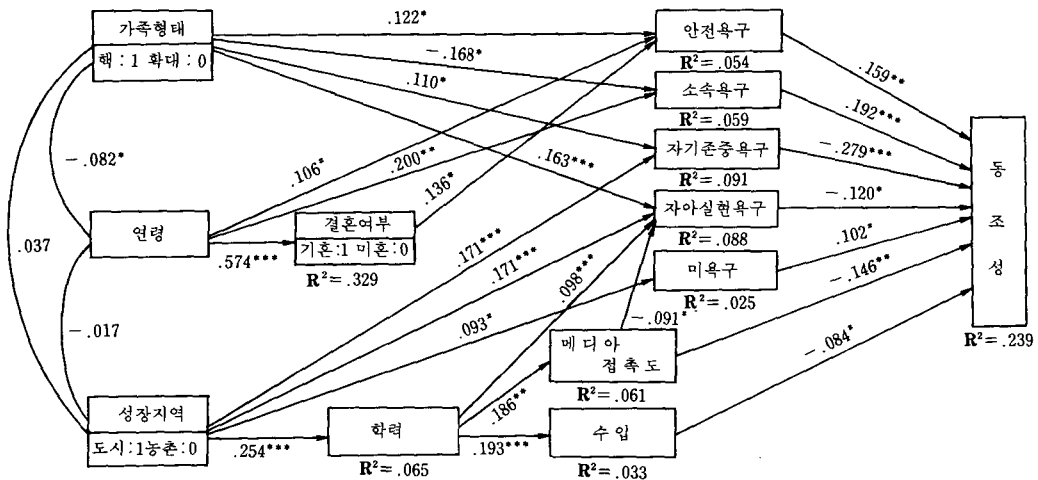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의복의 동조성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욕구변인을 살펴보면 욕구하위변인중 안전, 소속과 애정,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의 욕구로 나타났다.

먼저 매개변인인 안전요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p<.05)와 가족형태(p<.05) 그리고 연령(p<.10)으로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β=1.22)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β=.106) 안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연령(p<.01) 및 가족형태(p<.01)로 연령층이 높을수록(β=.200) 그리고 확대가족이 핵가족구성원(β=-.168)보다 소속 욕구가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존중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장지역(p<.001)과 가족형태(p<.05)로 나타났다. 농촌사람보다 도시사람(β=.171)이 높고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구성원(β=.110)이 보다 자기존중욕구가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아실현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연구통계학적 변인인 성장지역(p<.001), 가족형태(p<.001), 학력(p<.10) 그리고 미디어접촉도(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β=.171)이 확대가족보다 핵가족구성원이(β=.163) 높고 학력(β=.098)이 높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경로분석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장지역 ($p < .10$)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 ($\beta = .093$)일수록 미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동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미디어접촉도 ($p < .01$)와 수입 ($p < .10$)이며 욕구 하위변인으로는 자기존중욕구 ($p < .001$), 소속욕구 ($p < .001$), 안전욕구 ($p < .01$), 자아실현욕구 ($p < .05$), 미욕구 ($p <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접촉도와 수입은 동조성에 負의 영향을 미쳐 미디어접촉도가 낮고 ($\beta = -.146$), 수입이 낮은 사람 ($\beta = -.084$)은 의복에서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이 높은 집단이 동조를 많이 한다는 Hunt와 Goldberg³⁰⁾ 등의 견해와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접촉도와 수입은 학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입이 높고 T.V와 신문, 잡지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은 간접적으로 동조성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²⁴⁾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자에 여대생을 다수 포함시킨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고 여대생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 자기존중욕구가 낮을수록 ($\beta = -.279$) 의복에서 동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낮기 때문에 자기위주보다 타인위주의 의복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집단의 압력에 따르기 쉽다는 Marlowe²⁰⁾의 견해를 지지하고 자존심과 동조의 부적상관을 밝힌 stang²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높을수록 ($\beta = .192$) 의복에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 자신이 속한 집단속에서 다른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의 영향에 민감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가 다른 한국과 미국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¹⁸⁾와 일치하고 규범적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장과 사회의 의복규범을 많이 인식하고 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 박혜선¹⁷⁾과 동료나 집단에

수용되기 위하여 집단구성원의 의복에 동조한다고 밝힌 Smuck와 Creekmore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다음은 안전욕구가 강할수록 ($\beta = .139$) 의복에서 동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감정적 손해를 보게되는 두려움 즉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기때문에 의복을 통해 동조함으로써 안정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 동조성을 중시한다고 보고한 Lapisky¹⁴⁾, 강혜원¹⁵⁾ 그리고 안정성욕구가 강할수록 동조적인 행동을 한다고 밝힌 神山進¹⁸⁾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욕구가 낮을수록 ($\beta = -.120$) 의복에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²⁴⁾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기성취욕구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감이 낮고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승인받으려하고 새로운 정보추구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농촌사람이, 핵가족구성원보다 확대가족구성원이 그리고 학력이 낮고 미디어접촉도가 낮을수록 현저하였다. 다음 미의 욕구가 높을수록 ($\beta = .102$) 의복에서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로 도시여성에게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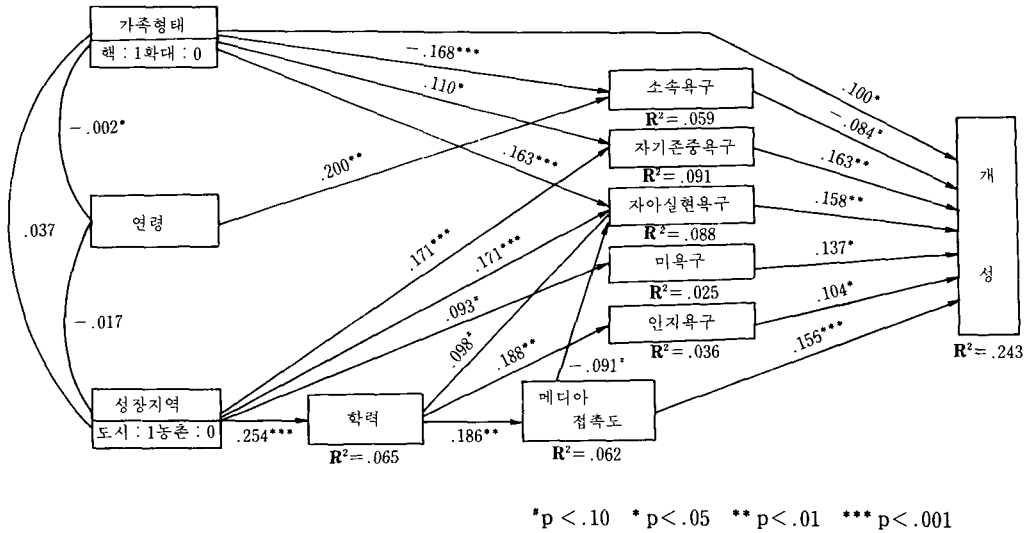
• 2) 개성

의복의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매개변인인 욕구하위변인중 소속, 자기존중, 자아실현, 인지욕구, 미욕구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인지욕구를 제외하고는 동조성과 동일하다. 인지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력 ($p < .01$)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beta = .188$)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이상의 것을 알고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미디어접촉도 ($p < .001$)와 가족형태 ($p < .05$) 그리고 욕구하위변인으로는 자기존중욕구 ($p < .01$), 자아실현욕구 ($p < .01$), 미욕구 ($p < .05$), 인지욕구 ($p < .05$), 소속욕구 ($p <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존중욕구 ($\beta = .163$)로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그림 2] 의복의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경로분석

확신이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한 Baron과 Byrne¹⁷⁾, 개성적인 행동은 독립성과 자신감에 좌우된다고 본 Horn²²⁾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확대가족보다 핵가족 구성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미디어접촉도 즉 T.V나 신문, 잡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beta = .156$)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채택과정에서 선도자가 추종자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한다고 한 polegato와 Wall³⁹⁾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다음 자아실현욕구가 높을수록($\beta = .158$)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성취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때문에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지않고 의복을 통해서 자기표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조주의자는 자아실현성이 낮은 반면 개성주의자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결과²⁴⁾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서 성장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특히 확대가족보다 핵가족구성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미의 욕구가 높을수록($\beta = .137$) 의복에서 개성을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조주의자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복에서 동조나 개성중 어느쪽을 추구하느냐에 관계없이 의복선택시 미에 대한 욕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인지욕구가 높을수록($\beta = .104$) 의복에서 개성이 높게 나타나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 이상의 것을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의복에서 개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실현수준 즉 자기성취성향이 높은 사람은 설득하기 어려우며 다자인 지각에 있어서도 더 분석적이라고 본 Boehme²⁶⁾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형태에 있어 확대가족보다 핵가족구성원($\beta = .100$)이 의복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가족의 특성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않고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개인지향적인 태도가 의복에서 그대로 표현된다고 본 선행연구²⁴⁾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소속의 욕구가 낮을수록($\beta = -.084$) 의복에서 개성이 높게 나타나 동조성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속하고자하는 소속감을

얻기위해 동조를 원하며 보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기때문에 개성을 중시한다고 한 Horn²²⁾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러나 직업유무, 종교유무, 결혼여부, 수입은 어떤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의복의 동조성, 개성에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중요성 및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복의 동조, 개성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욕구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안전욕구에는 결혼여부, 가족형태, 연령이 그리고 소속욕구에는 가족형태와 연령이 영향을 미쳤다. 자기존중욕구에는 가족형태와 성장지역이, 자아실현욕구에는 가족형태, 성장지역, 학력, 미디어접촉도가, 그리고 미욕구에는 성장지역, 인지욕구에는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기혼여성들은 미혼여성보다 안전, 소속욕구가 높고 핵가족구성원들은 안전, 자기존중, 자아실현욕구가 높은 반면 확대가족구성원들은 소속욕구가 높았다. 또한 농촌보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욕구가 높고, 학력이 높고 미디어접촉도가 높은 사람은 자아실현, 인지욕구가 높았다. 이는 개인의 욕구를 개인이 지각하게되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입증해 준다.

2. 의복의 동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욕구하위변인으로 자기존중, 소속, 안전, 자아실현, 미욕구의 순이며 미디어접촉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변인은 수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안전, 소속욕구를 통해서, 결혼여부는 안전욕구를 통해서, 성장지역은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욕구를 통해서, 가족형태는 안전, 소속, 자기존중,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그리고 학력은 수입, 미디어접촉도,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의 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욕구하위변인으로는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 인지, 소속욕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접촉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소속욕구를 통해서, 가족형태는 소속, 자기존중, 자아실현욕구를 통해서, 그리고 성장지역은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의욕구를 통해서, 학력은 자아실현, 인지욕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서 동조주의자는 두려움 즉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집단에 소속하여 승인받으려는 욕구 및 미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존감이나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낮을수록 집단규범의 옷을 중시하였다. 또한 T.V나 신문, 여성지등의 정보접촉도가 낮고 수입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동조를 중시하였다. 반면에 개성주의자는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가 낮고 의복을 통해 자존감을 갖거나 자기를 실현하고 미를 추구하려는 욕구,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 지식이상의 것을 알고 이해하고 체계화하려는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개성표현을 중시하였다. 또한 T.V나 신문, 여성잡지등을 통해 정보를 많이 추구하며 개인지향적인 핵가족구성원일수록 의복을 통해서 개성표현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욕구변인은 의복의 동조성, 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의 동조·개성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에서 동조하거나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에는 하나의 욕구가 아닌 여러개의 욕구가 영향을 미치고 욕구의 종류나 강도 및 우선순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따라서 행동방향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욕구를 동기로 설명하면서 어떤 행동도 여러욕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한 Maslow와 인간행동을 결국 욕구상태 하나만으로 이해할수 없고 또한 그들행위를 단순히 환경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욕구와 환경 양자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 Murray의 견해를 지지하고 개인의 욕구수준 즉 maslow의 기본욕구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진주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기때문에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Tarde, J.G., *Les lois de limitation; etude Sociologique*, Cited by, N. Timasheff, *Sociological Theory*, (N.Y.: Randon House), 105, (1967)
- 2) Cundiff, E.W., R.R. Still and Norman A.P. Govoni, *Fundamentals of Modern Market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28, (1980)
- 3) 서성한, 소비자행동론, 교문사 254, (1991)
- 4)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1), 1-12, (1989)
- 5) 이은영, 패션마케팅, 교문사, 254, (1991)
- 6) 이상노, 이관용,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231-266, 443-594, (1982)
- 7)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법문사, 118-195, 456, (1985)
- 8) Murray, H.A.,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123-24, (1930)
- 9) Lewin K.,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Selected theoretical papers*, D. Cartwright (Ed.) New York: Harper & Row, 289 (1951)
- 10) Cattell, R.B.,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Study*, London: Hutchinson House, (1950)
- 11) Maslow, A.M.,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2nd, ed, 35-58, (1970)
- 12) Sproles, G.V.,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 197, (1979)
- 13)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3)
- 14) Lapisky, M.,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61)
- 15)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집, 349-376, (1974)
- 16) 神山進, 被服の 選択に みられる 同調行動と その 決定因, *衣生活研究*, 8(3, 4), 21-31, (1981)
- 17) 박혜선, 이은영, 의복동조 및 비동조의 관련변인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2), 227-235, (1992)
- 18) 강경자, 여대생의 기본욕구와 의복선택행동간의 관계연구,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2(4), 11-25, (1984)
- 19) 정하신, 의복선택요인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0) Marlowe, D. & Gergen, K.J., *Personal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2nd.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590-665, (1969)
- 21) Stang, D.J., *Confrimity, Ability and Self-esteem*,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3, 97-103, (1972)
- 22)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ufflin Co, 145, (1975)
- 23) Centers, R., *Social Character and Conformity: A Differential in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J. of Social Psychology*, 60(2), 343-349, (1963)
- 24)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3), (1989)
- 25)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6) Boehme, L.C., *Persuasibility and Visual Perception of a dress design as related to Selec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70)
- 27)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 to 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28) Gurel, L.M., Wilbur, J.C. & Gurel, L., *Personality Correlates of Adolescent Clothing Styles*, *J. of Home Economics*, 64(3), 42-47, (1972)
- 29) 강혜원, 의상심리학, 교문사, 111, (1984)
- 30) 송용섭, 정혜영, 패션마케팅, 법문사, 227-228, (1987)
- 31) Rosencranze, M.L., *Clothing Concept*, N.T: The Macmillan Co. 92-93, (1972)
- 32) Jenkins, P.E., *Conformity as an Aspect of Personality and its Relation to Certain Clothing Attitudes and Behavior of a Selected Group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The Penn. State Univ. (1958)
- 33) Robolt, N.J., Drake M.F.,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11-19, (1984-1985)
- 34)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35) 이인자,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대 연구소보*, 제 2 집, 63-94, (1978)
- 36) 양명희, 청소년기 근로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자아개

- 념과의 상관연구, 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37) 이선재, 한국여성의 의복선택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아제아연구소, 114-123, (1983)
- 38) Hunt, R.G., Goldberg, S., Meadow, A and Cohen, W., Some Demographic Factors in Conformity Behavior, *Sociology and Soical Research*, 42(3), 196-198, (1958)
- 39) Polegato, R. & Wall, M., "Information Seeking by fashion Opinion Leaders and Follow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333, (1980)
- 40) 박은주,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요인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